

민주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 카드 꺼내

이재명 대표 "내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야" 정의당 "5·18 헌법 전문 담겠다는 약속 지켜야" 국힘 "쉽지 않아" 난색... "국면 전환용 꼼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광주 민심을 잡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5월 정신의 계승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의 삶과 생명 해치는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당 확대집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하루 만에 재차

언급한 것이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원포인트 개헌을 외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는 말을 바꾸지 말라는 취지다. 박광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구체적인 제시한다면 5·18 헌법 개헌은 쉽게 국민의 환영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5·18이 더 이상 정쟁이 되고 시비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믿는 가치를 확실히 하기 위한"이라고 했다.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엇보다 대통령은 공인된 역사인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5·18 광주 민주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등대임을 마음속 깊이 수용해 다시는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망언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원포인트 개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문에 "쉬운 게 아니다"라며 "8년 체제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시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나아가 2021년 전당대회 동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고자 원

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지금 이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매우 다급하지 않나"라며 "분명하게 하나씩 매듭지어야 할 일까지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 "비리로 얼룩진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 권력을 남용해 자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나"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 야당 파괴하기 위해 부당하게 검찰권 남용하고 기소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다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전북지역 의견 청취

오늘 도청 중회의실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19일 오후 1시 전청도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북도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해 지역 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 안될말" 동학학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등 관계자들이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도 천년사 고부봉기 오류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이스라엘과 협력방안 모색

한-이스라엘 컨퍼런스 참가

김관영 도지사가 18일, 서울 엠베서 더 풀민에서 열린 한국-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참가, 전북과 이스라엘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요즈바그롭이 주관하고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13대 이스라엘 전 총리, 장태경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축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정·재계 인사 370여명이 참가했다. 스타트업 국가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60년간 50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스라엘은 기초 과학, 정보기술, 방위산업 등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2022년 기준 국가 규모 대비 연구인력 비율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근로자 1만명 당 과학기술자 140명(미국 85명, 일본 83명)" 김관영 도지사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허브로 성장하는 전북과 이스라엘 혁

신역량이 협업한다면 최상의 경제적 시너지를 낼 것이다"며 전북도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현업 사례 : 나노스(NANOX) - 이스라엘 의료영상 기술기업(경기도 용인 공장)" 한편 한국-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신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 간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첫 개최됐었다. /김재훈 기자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 총력

도의회, 특별위원회 출범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는 18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 부위원장에 권오안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5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 구성은 김동구 위원장 권오안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희수 위원, 나인권 위원, 문승우 위원, 박정희 위원, 서난이 위원, 오은미 위원, 최형열 위원 등 11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에 따라 전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구 위원장은 "충북과 경북 등 전국 각 지자체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로서 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완벽하게 갖춘 전북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나도 의원'... 도의회, 올 첫 청소년 모의의회

전주서일초 학생들이 참여... 자유발언·조례안 제정 등 진행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8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계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모의의회는 전주서일초등학교 4학년 6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 의원 의사당장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 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며 "모의의회를 통해 의견을 주장하고 경청하는 올바른 토론 자세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모의의회이며, 19일에도 전주서일초등학교 4학년 42명이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여한다. 또한 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의회를 찾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 수정 가결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등 총 10건서 삭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의원)는 18일, 제4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88억원이 증액된 4,358,875억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1,029,890만원) △온오프라인 수업연계 시스템 보급(199,600만원) △해외연수 현장 모니터링 운영(2억) △전북미래학교 운영 지원(2억4,000만원) △사후환경개선(694,960만원) △다목적 멀티스튜디오 구축(3억9,160만원) 등 총 10건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스마트 칠판 및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학

생 국외연수 경비 교통안전 환경개선, 학교 식생활관 개선 등이 편성 주내용이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스마트 칠판,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스마트기기 보급에만 머물지 말고 활용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생 해외연수 진행 시 국제교류팀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민 위원(남원1)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 관련하여 "인조잔디구장 조성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운

동장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공사 진행도 최신 기술과 공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일선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는 학교폭력 업무를 신규교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원직무연수 연수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달라"고 함축소리를 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28일과 2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문건위, 아태 마스터스 경기장서 현장 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8일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수경경기가 열리고 있는 전주완산수영장을 방문해 경기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경기를 참관하는 등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해외 및 국내 참가자들이 대회 및 경기 운영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경기운영단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노고에 감사사를 표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남은 기간동안에도 선수들이 안전사고 등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농산경위, 김제 백구 특장차단지 방문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8일 김제백구특장차단지를 방문해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백구특장차단지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특장차 집적화 단지로 현재 33개 기업이 집적화해 특장차(부품)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현황을 청취한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특장산업은 건설, 레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다변화해 가고 있어 그 상응하는 신기술과 신소재를 활용한 첨단기술 고도화를 통해 발전 잠재 가치가 매우 큰 산업"이라며 "특장차 수요 증가 추세와 더불어 지속 성장하는 세계 특장차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특장차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